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

조 봉 환[†]

공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성별, 연령별, 다문화 여부에 따른 진로흥미와 진로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남과 전남의 4-6학년 초등학생 341명(다문화: 165명, 일반: 176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흥미는 성별 주효과가 있었는데, 탐구형은 남학생이 높고, 예술형과 사회형은 여학생이 높았다. 다문화의 주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둘째, 진로인식은 다문화와 성별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다문화의 주효과는 자기이해, 직업세계인식, 진로태도 및 진로인식 총점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성별 주효과는 자기이해, 직업세계인식, 진로인식 총점에서 유의하였으며 여학생이 높았다. 셋째, 학년에 따른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을 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예술형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졌으며, 진로인식의 경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직업세계 인식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전 영역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상관관계는 일반가정 초등학생에게서 보다 뚜렷하였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예술형이 진로인식과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가정 초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여부가 직업세계 인식과 진로태도, 진로인식 총점에 대해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진로인식에 영향력 있는 진로흥미는 사회형과 예술형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예술형의 영향이 큰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의 영향이 컸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다문화 관련 진로교육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진로흥미, 진로인식

* 이 연구는 2011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 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봉환,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314-71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번지
Tel : 041-850-1726, E-mail : cho2433@gjue.ac.kr

오랫동안 흥미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업으로의 진입에 있어서 다양한 직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적성보다는 흥미에 의해 더 정확하게 예측되기 때문이다(Sharf, 2006). 흥미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단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한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흥미가 높으면 높은 동기와 만족감을 갖게 되므로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아동의 흥미영역과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어릴 때부터 자신의 흥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발달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이해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진로발달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흥미나 능력의 발달과 관련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 국내 연구들을 보면 진로발달의 특징을 관찰한 기술적인 자료보다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많고,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동기 진로발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드물다(공윤정, 박한샘, 2009).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의 흥미 또는 진로발달에 관해 탐색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이는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진로성숙을 적용한 연구를 국외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해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의 흥미 또는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는 다

문화 아동의 진로발달을 조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의 진로교육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6세에서 21세까지의 학령인구는 2010년 9,901,000명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2030년에는 6,163,000명으로, 1970년 12,604,000명 이후 6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학생수는 증가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2008-2011 시도별 각급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은 총 38,890명으로 초등학생 28,748명(73.9%), 중학생 7,735명(19.9%), 고등학생 2,407명(6.2%)으로 2008년 20,174명에서 3년 사이에 92.8% 급증하였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교과 지도(27.8%)’, ‘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25.5%)’, ‘한국어·한글교육(9.3%)’, ‘나의 모국어교육(8.2%)’, ‘진학지도(8.0%)’, ‘심리상담(5.6%)’, ‘기타(15.6%)’로 응답했는데, 이는 교과(기초교과 지도, 한글 교육 등)와 경제적인 지원(학교교육비·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진학지도’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0). 뿐만아니라 이재분(2008)도 국제결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녀의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동양계 미국 청소년들이 진로정보에 대해 무지하여 다양하게 진로선택을 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 직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호한다는 연구(곽준규, 1994) 결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교육보다는 심리·사회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김경란, 2007; 이영주, 2007).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경제적 여건, 직업포부, 중요한 타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탐색과 준비의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신이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알며, 주변의 여러 가지 진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진로인식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인식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교육의 첫 단계로서 그 뿌리가 된다는 점과 다음 단계로의 진행되는 진로교육의 기초 및 방향결정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현림, 주문자, 2007). 따라서 진로인식기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교육에 방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연구,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위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진로발달(조봉환, 2010; 조봉환, 2011)과 진로성숙(김효영, 2011)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이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대체로 부분적으로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진로성숙의 경우 국외 연구에서도 Rojewski(1994)는 미국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간에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는데 대체로 백인,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여자, 진로선택에 대해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아시아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진로성숙도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의사결정의 의존적 스타일에 더 강한 선호를 나타냈으며(Leong, 1991) 백인 미국인보다 멕시코계 학생이 의사결과와 진로발달 검사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Lundberg, Osborne, & Miner, 1997).

또한 흥미의 경우 국외연구에서 다문화 집단의 흥미 및 진로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는 주로 다문화 성인의 진로흥미에 관한 것으로 아동 대상의 진로흥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문화 성인의 흥미에 관한 연구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유럽계 미국인, 히스패닉/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 간에 흥미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Fouad, 2002), Tracey, Watanabe와 Schneider(1997)는 미국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흥미 모델을 일본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봉환(2011)은 다문화와 일반 아동의 학습흥미 조사를 통해 음악적 흥미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학습흥미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Super, Savickas, & Super, 1996)에서는 아동기 초기에는 아동이 자신의 흥미나 능력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동기 말이 될수록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직업흥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분화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Tracey, 2002), 아동기 흥미의 발달은 전반적인 학업과 진로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와 능력이 발달하

는 것,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인식, 흥미와 능력의 분화가 일어나는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탐색할 수 있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결국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흥미 외에도 진로와 관련된 흥미영역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인식은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발달과정으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김충기, 1995). 진로인식 단계에서 개인은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 활동과의 관계, 각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 기능, 학력, 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의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고 사고하며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인식의 획득과정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자신과 직업세계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탐색활동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진로인식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임경희, 2004). 결국 초등학교시기의 진로인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개념 및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진로발달의 기초가 되어 본격적인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내외에서의 활동을 통한 흥미의 발달이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의 중요한 단면이 되며(Sharf, 2006), 흥미가 효능감의 발달을 야기하는 것처럼 자기효능감의 발달도 흥미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Tracey, 2002)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

기효능감의 부족이 학습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진로인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발달양상은 다문화 여부 뿐만 아니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흥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흥미 유형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차이가 있으며(이종범, 2005), 진로흥미 정도에서 여학생이 다소 높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지용근, 2004).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흥미의 차이가 드러날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염미화, 2008; 형운주, 2005; 공윤정, 박한샘, 2009).

그러나 진로인식에 있어서는 학업/직업탐색의 정도, 진로계획, 직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이종범, 2005; 임은경, 2000; 임은미, 2004; 형운주, 2005)와 진로태도(김재호, 2006; 염미화, 2008; 이종범, 2007; 최명숙, 2003; 형운주, 2005)에서 모두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관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10세 또는 11세에 발달하며(McGee & Stockard, 1991),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Dorr & Lesser, 1980; Gunn, 1964; Nelson, 1963)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아동발달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일에 대한 기대, 활동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6학년부터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이현림, 이난희, 이영옥, 2006).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인식(김옥환, 조봉환, 1998; 박성미, 이순화, 2004)과 진로태도(강영숙, 2002; 권혁본, 2001; 김재호, 2006; 유복희, 2003; 정영희, 2007)가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자의 진로태도가 남자의 진로태도보다 발달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드물게 남자의 진로태도가 여자보다 발달했다거나(이현림, 김순미, 2004), 성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경우(민경윤, 2002)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발달양상을 다문화 여부와 성별, 학년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다문화 여부와 성,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상관관계 및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은 다문화 여부와 성별, 학년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은 어떤 상관을 보이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과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165명(남: 75명, 여: 88명; 4학년: 68명, 5학년: 56명, 6학년: 41명; 일본: 51명, 중국: 27명, 필리핀: 27명, 베트남: 4명, 몽골: 2명, 태국: 4명, 무응답 및 기타: 50명), 일반가정 초등학생이 176명(남: 88명, 여: 88명; 4학년: 132명, 5학년: 111명, 6학년: 98명)으로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학년			성별		전체
	4	5	6	남	여	
다문화	68	56	41	75	90	165
일반	64	55	57	88	88	176
전체	132	111	98	163	178	341

측정도구

가. 진로흥미 척도

진로흥미검사는 김남규(2000)가 Holland의 자기주도 진로탐색검사에서 사용된 직업명을 토대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육각형별 진로흥미검사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용 진로흥미검사의 Cronbach's α는 실재형 .85, 탐구형 .89, 예술형 .90, 사회형 .86, 기업형 .86, 관습형 .83으로 나타났다.

나. 진로인식 척도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측정에는 한국고용정보원(2008)에서 개발한 진로인식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인식 검사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예비조사를 통하여 초등학생용 진로인식검사에 포함시켜야 할 구인들을 탐색하고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 이에 근거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진로인식 검사는 진로인식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부주의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인식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자기이해(자기탐색, 의사결정성향, 대인관계성향), 직업세계인식(직업편견, 직업가치관), 진로태도(자기주도성, 진로준비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발달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성별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진로흥미와 진로인식 각각에 대하여

다문화 여부 및 성별 변인을 투입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학년별 차이분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진로흥미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다문화 여부를 디미변수 처리하여 다문화여부와 진로흥미의 6개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인식 총점과 하위영역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PASW Statistics 19.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 효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성별 진로흥미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이 진로흥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초등학생 모두 대체로 탐구형과 예술형의 진로흥미가 다른 영역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흥미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주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탐구형과 예술형, 사회형 진로흥미에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진로흥미의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다문화가정 여부는 진로흥미 전 영역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문화 가정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탐구형 진로흥미

표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 기술통계량

구분	집단	M	SD	성별	M	SD
실재형	다문화 (n=165)	16.28	5.14	남(n=75)	16.52	5.11
				여(n=90)	16.08	5.19
	일반 (n=176)	16.35	5.16	남(n=88)	16.43	5.60
				여(n=88)	16.28	4.71
탐구형	다문화	19.20	7.64	남	21.36	7.93
				여	17.41	6.93
	일반	19.13	7.60	남	21.39	8.15
				여	16.86	6.28
예술형	다문화	19.89	7.50	남	16.65	5.83
				여	22.60	7.68
	일반	20.58	7.76	남	16.89	6.12
				여	24.27	7.49
사회형	다문화	17.09	5.56	남	16.02	4.62
				여	17.97	6.12
	일반	17.85	6.17	남	17.35	6.25
				여	18.36	6.08
기업형	다문화	17.52	6.79	남	17.08	6.51
				여	17.90	7.03
	일반	18.29	6.90	남	18.25	6.48
				여	18.34	7.34
관습형	다문화	16.23	6.26	남	15.93	6.20
				여	16.48	6.33
	일반	16.59	6.30	남	16.28	6.34
				여	16.89	6.28

의 경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초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형과 사회형 진로흥미는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성별 진로인식 기술통계량과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이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진로인식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

표 3. 진로흥미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제공합	평균제공	F
실제형	다문화	.24	.24	.01
	성별	7.10	7.10	.26
	다문화*성별	1.70	1.70	.06
탐구형	다문화	5.50	5.50	.10
	성별	1525.51	1525.51	28.30***
	다문화*성별	7.26	7.26	.13
예술형	다문화	77.91	77.91	1.64
	성별	3762.14	3762.14	79.58***
	다문화*성별	43.24	43.24	.91
사회형	다문화	62.09	62.09	1.81
	성별	186.04	186.04	5.42*
	다문화*성별	18.72	18.72	.54
기업형	다문화	55.01	55.01	1.16
	성별	17.59	17.59	.37
	다문화*성별	11.26	11.26	.23
관습형	다문화	12.23	12.23	.30
	성별	28.97	28.97	.73
	다문화*성별	.07	.07	.01

* $p < .05$ *** $p < .001$

표 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기술통계량

구분	집단	M	SD	성별	M	SD
자기이해	다문화 (n=165)	35.04	5.51	남(n=75)	33.85	4.59
				여(n=90)	36.04	6.02
	일반 (n=176)	36.21	4.95	남(n=88)	35.52	5.01
				여(n=88)	36.90	4.82
직업세계인식	다문화	23.20	3.73	남	22.73	3.58
				여	23.60	3.82
	일반	24.26	3.56	남	23.59	3.76
				여	24.94	3.23
진로태도	다문화	34.37	5.95	남	33.58	5.40
				여	35.03	6.33
	일반	36.59	5.23	남	36.20	5.57
				여	36.97	4.86
진로인식 총점	다문화	92.63	12.32	남	90.17	10.72
				여	94.67	13.22
	일반	97.07	11.38	남	95.31	12.34
				여	98.82	10.10

표 5. 진로인식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성별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제공합	평균제공	F
자기이해	다문화	136.12	136.12	5.09*
	성별	271.31	271.31	10.15**
	다문화*성별	13.72	13.72	.51
직업세계인식	다문화	102.67	102.67	7.86**
	성별	104.37	104.37	7.99**
	다문화*성별	4.99	4.99	.38
진로태도	다문화	441.15	441.15	14.16***
	성별	104.42	104.42	3.35
	다문화*성별	9.62	9.62	.30
진로인식총점	다문화	1832.18	1832.18	13.35***
	성별	1362.11	1362.11	9.92**
	다문화*성별	20.90	20.90	.15

* $p < .05$ ** $p < .01$ *** $p < .001$

같다. 진로인식 총점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하위영역 모두에서 다문화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일반 가정 초등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진로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하위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의 주효과는 진로인식 총점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영역에서만 유의하였는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집단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진로인식의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다문화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에 대한 학년별 비교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

미와 진로인식의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은 예술형에서만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진로흥미에서 대체로 4학년이 5학년과 6학년에 비해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또한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높은 흥미를 나타내었다.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진로흥미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진로인식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모두 직업세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다문화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

정 초등학생은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초등학생은 6학년이 4학년과 5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 학년별 차이

구분	4학년(n=68) M(SD)	5학년(n=56) M(SD)	6학년(n=41) M(SD)	F	p	scheffe 사후검증	
다문화 가정	실재형	17.25(5.63)	15.73(4.77)	15.43(4.61)	2.09	.126	
	탐구형	18.80(7.52)	18.73(7.51)	20.51(8.03)	.79	.453	
	예술형	22.33(8.11)	18.64(6.77)	17.56(6.26)	6.82**	.001	4>5, 4>6
	사회형	17.80(6.39)	16.64(5.22)	16.51(4.42)	.96	.382	
	기업형	18.35(7.83)	17.10(6.12)	16.73(5.74)	.88	.413	
	관습형	17.30(7.26)	15.67(5.14)	15.21(5.69)	1.77	.173	
일반 가정	실재형	16.67(5.31)	17.10(5.94)	15.28(3.95)	1.96	.144	
	탐구형	20.43(7.60)	20.30(8.13)	16.52(6.46)	5.17**	.007	4>6, 5>6
	예술형	22.37(8.86)	21.09(7.13)	18.08(6.36)	4.98**	.008	4>6
	사회형	18.78(6.53)	19.07(6.43)	15.64(4.87)	5.72**	.004	4>6, 5>6
	기업형	19.59(7.16)	19.47(7.49)	15.70(5.20)	6.30**	.002	4>6, 5>6
	관습형	17.39(6.79)	17.32(6.93)	14.98(4.68)	2.80	.063	

**p<.01

표 7.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학년별 차이

구분	4학년(n=68) M(SD)	5학년(n=56) M(SD)	6학년(n=41) M(SD)	F	p	scheffe 사후검증	
다문화 가정	자기이해	35.26(5.91)	35.14(5.82)	34.56(4.36)	.21	.804	
	직업세계인식	22.26(3.50)	24.07(3.96)	23.58(3.50)	.402*	.020	4<5
	진로태도	34.32(5.90)	35.28(6.39)	33.21(5.32)	1.43	.241	
	진로인식 총점	91.85(12.78)	94.50(13.06)	91.36(10.34)	.99	.372	
일반 가정	자기이해	35.82(5.38)	36.05(5.06)	36.80(4.33)	.62	.535	
	직업세계인식	23.09(3.26)	24.90(3.80)	24.96(3.36)	5.73**	.004	4<5, 4<6
	진로태도	35.95(4.67)	37.12(5.84)	36.78(5.21)	.80	.449	
	진로인식 총점	94.87(11.10)	98.09(12.41)	98.56(10.43)	1.92	.150	

*p<.05 **p<.01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관계 분석

미와 진로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은 진로흥

표 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상관관계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인식	진로 태도	진로 인식 전체
실재형	1.00									
탐구형	.64**	1.00								
예술형	.55**	.30**	1.00							
사회형	.68**	.60**	.64**	1.00						
기업형	.69**	.60**	.66**	.80**	1.00					
관습형	.73**	.59**	.52**	.78**	.81**	1.00				
자기이해	.07	.07	.31**	.16*	.18*	.13	1.00			
직업세계인식	.04	.08	.07	.05	.07	.05	.23**	1.00		
진로태도	.02	.04	.20**	.14	.13	.10	.79**	.23**	1.00	
진로인식전체	.05	.07	.25**	.16*	.17*	.13	.90**	.51**	.90**	1.00

* $p < .05$, ** $p < .01$

표 9.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상관관계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인식	진로 태도	진로 인식 전체
실재형	1.00									
탐구형	.61**	1.00								
예술형	.50**	.24**	1.00							
사회형	.65**	.54**	.53**	1.00						
기업형	.67**	.62**	.60**	.75**	1.00					
관습형	.67**	.55**	.47**	.79**	.76**	1.00				
자기이해	.22**	.14	.20**	.31**	.23**	.25**	1.00			
직업세계인식	.05	.01	.17*	.11	.04	.01	.36**	1.00		
진로태도	.23**	.25**	.20**	.33**	.25**	.22**	.70**	.41**	1.00	
진로인식전체	.22**	.18*	.24**	.32**	.23**	.21**	.87**	.66**	.89**	1.00

* $p < .05$ ** $p < .01$

미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진로인식 총점과 자기이해 영역은 예술형 진로흥미와 가장 뚜렷한 상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업형, 사회형 진로흥미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진로태도 영역은 예술형 진로흥미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직업세계 인식 영역은 진로흥미의 전체 영역에서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대부분의 진로흥미 영역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 총점과 진로태도 영역은 6개 진로흥미 전체 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사회형 진로흥미가 진로인식 총점 및 자기이해, 진로태도와 가장 뚜렷한 상관을 보였으며, 예술형, 기업형, 실재형, 관습형, 탐구형의 순으로 상관정도가 뚜렷하였다. 탐구형 흥미는 진로태도에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직업세계 인식 영역은 예술형 흥미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과 진로흥미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인식과 진로흥미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로인식과 진로흥미가 보다 뚜렷한 상관을 보였다. 진로인식과 진로흥미의 하위영역들과의 상관을 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예술형 흥미가 진로인식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 흥미가 진로인식과 전반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두 집단의 학생 모두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흥미가 진로인식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요소로 나타났으며, 탐구형 흥미가 가장 관련성이 낮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진로흥미의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집단 변인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다문화집단 여부와 6개 진로흥미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인식 총점과 하위영역인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으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각각에 대하여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투입된 진로흥미 하위영역의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 모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자기이해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술형 흥미와 사회형 흥미가 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세계 인식 영역에 대해서는 다문화 여부와 예술형 흥미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3.1%를 설명하였으며, 진로태도 영역은 사회형 흥미와 다문화 여부가 9.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 전체 총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형, 다문화 여부, 예술형 흥미였으며 1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진로흥미 영역은 사회형과 예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형 흥미는 자기이해과 진로태도 및 진로인식

표 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Adj R ²	F	Tolerance	VIF
자기이해	상수	31.97		40.94 ^{***}	.069	.067	25.29 ^{***}	1.00	1.00
	예술형	.18	.26	5.02 ^{***}					
	상수	30.91		33.87 ^{***}					
	예술형	.12	.18	2.81 ^{**}					
직업세계 인식	상수	24.26		88.23 ^{***}	.021	.018	7.20 ^{**}	1.00	1.00
	다문화	-1.06	-.14	-2.68 ^{**}					
	상수	23.03		38.58 ^{***}					
	다문화	-1.02	-.13	-2.59 [*]					
진로태도	상수	31.27		33.35 ^{***}	.063	.060	22.81 ^{***}	1.00	1.00
	사회형	2.43	.25	4.77 ^{***}					
	상수	32.45		32.97 ^{***}					
	사회형	.23	.23	4.61 ^{***}					
진로인식 전체	다문화	-2.03	-.17	-3.45 ^{**}	.066	.063	23.78 ^{***}	1.00	1.00
	상수	85.77		43.33 ^{***}					
	사회형	.52	.25	4.87 ^{***}					
	상수	88.13		42.32 ^{***}					
	사회형	.50	.25	4.72 ^{***}					
	다문화	-4.05	-.16	-3.25 ^{**}					
	상수	86.37		39.53 ^{***}					
	사회형	.31	.15	2.43 [*]					
다문화	-4.03	-.16	-3.25 ^{**}	.110	.102	13.89 ^{***}	.65	1.51	
예술형	.24	.15	2.47 [*]						

* $p < .05$ ** $p < .01$ *** $p < .001$

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형 흥미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인식 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다문화 여부도 자기이해를 제외한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진로인식 전체 점수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Adj R ²	F	Tolerance	VIF
자기이해	예술형	.23	.31	4.19***	.098	0.92	17.624***	1.00	1.00
진로태도	예술형	.16	.20	2.64**	.041	.035	6.98**	1.00	1.00
진로인식전체	예술형	.42	.25	3.43**	.067	.062	11.76**	1.00	1.00

** $p < .01$ *** $p < .001$

표 12.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Adj R ²	F	Tolerance	VIF
자기이해	사회형	.25	.31	4.41***	.101	.096	19.51***	1.00	1.00
직업세계인식	예술형	.08	.17	2.37*	.031	.026	5.62*	1.00	1.00
진로태도	사회형	.28	.33	4.74***	.115	.109	22.50***	1.00	1.00
진로인식전체	사회형	.60	.32	4.60***	.108	.103	21.16***	1.00	1.00

* $p < .05$ *** $p < .00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이해, 진로태도 및 진로인식 총점 모두에 대해 예술형 흥미가 각각 9.2%, 3.5%, 6.2%의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술형 흥미가 진로인식의 다른 영역에 비해 자기이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이해와 진로태도, 진로인식 전체에 대해 사회형 흥미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9.6%, 10.9%, 10.8%를 설명하였다. 직업세계 인식 영역에 대해서는 예술형 흥미가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예술형 흥미만이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 흥미가 대체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예술형 흥미가 직업세계 인식과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양상을 다문화여부와 성별, 연령에 따라 살펴보고,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흥미의 양상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초등학생 모두 다른 흥미영역에 비

해 탐구형과 예술형의 진로흥미가 높게 나타났다. 탐구형과 예술형, 사회형 진로흥미에서 성별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탐구형 진로흥미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높았으며, 예술형과 사회형 진로흥미는 여학생이 높았다. 다문화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문화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진로흥미 전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흥미영역에 비해 탐구형과 예술형 흥미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탐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양상이 사회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동의 흥미 양상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아동의 흥미를 성인의 흥미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구분이 타당한가 하는 최근의 논의(Tracey, & Ward, 1998)에 힘을 실어준다. 공윤정과 박한샘(2009)은 아동의 현실에서 익숙한 활동을 이용해 아동의 흥미를 평가하고, 흥미의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 및 아동 흥미의 구조, 흥미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특히 탐구형과 예술형 흥미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흥미 특성에 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흥미의 성별 차이는 Holland의 RIASEC 유형을 반영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은 실재형과 탐구형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렷하고, 여학생은 사회형과 예술형에 대한 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종범, 2005; Tracey, 2002)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높게 나타난 진로흥미의 영역이 다른 것으로 조사된 본 연구

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흥미정도가 높고, 흥미가 빠르게 발달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공윤정, 박한샘, 2009; 이종범, 2005; 지용근, 2004)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를 연구한 조봉환(2011)도 두 집단 모두 성별에 따른 학습흥미의 양상이 다르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체로 학습흥미정도가 높고, 국어, 미술, 음악, 실과에서 두드러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진로흥미 영역 및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아동의 진로와 학습흥미의 발달 양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동의 진로흥미와 학습흥미는 어떤 발달양상을 보이는지, 이것이 진로발달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인식 총점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하위영역 모두에서 다문화 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 가정 초등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진로인식이 높았으며,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하위영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인식을 제외한 학업직업탐색, 진로계획 요인과 진로발달 총점에서 일반 가정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조봉환(2010, 2011)의 연구와 진로지향성, 직업의 이해, 진로선택의 합리성, 직업적 성편견, 자긍심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 김효영(2011)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인식에

다문화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학업직업탐색, 진로 계획 요인을 제외한 진로발달에서 다문화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조봉환(201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성별의 주효과는 진로인식 총점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영역에서 유의하여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진로인식의 총점과 하위 영역 모두에서 다문화 여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인식능력이 높고(김옥환, 조봉환, 1998),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박성미, 이순화, 2004), 같은 학년에서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의 진로태도가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강영숙, 2002; 권혁분, 2001; 김재호, 2006; 유복희, 2003; 정영희, 2007)과 일치되지만 남자의 진로태도가 여자보다 발달했다거나(이현림, 김순미, 2004) 성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경우(민경윤, 2002)와는 차이가 있다.

셋째, 진로흥미의 학년별 차이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예술형에서만 4학년이 5, 6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진로흥미 영역에서 대부분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흥미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가 5학년에서 6학년까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염미화, 2008; 형운주, 2005), 아동의 흥미나 능력의 발달 및 이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학년에 따라 그 차이가 드러날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지는 않는다는 논의들

(공윤정, 박한샘, 2009)을 고려할 때, 학년에 따라 진로흥미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된 양상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검증과 더불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인식의 학년별 양상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 모두 직업세계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높고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6학년이 4, 5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학업/직업탐색의 정도, 진로계획, 직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며(이종범, 2005; 임은경, 2000; 임은미, 2004; 형운주, 2005), 진로태도의 발달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재호, 2006; 염미화, 2008; 이종범, 2007; 최명숙, 2003; 형운주, 2005), 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적 일치되었다.

넷째,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상관관계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인식과 진로흥미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로인식과 진로흥미가 보다 뚜렷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영역들과의 상관을 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예술형 흥미가 진로인식과 높은 관련을 보이는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 흥미가 진로인식과 전반적으로 높은 관련을 보였다. 두 집단의 학생 모두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흥미가 진로인식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탐구형 흥미가 가장 관련이 낮았다. 이는 조봉환(2011)의 연구에서 학습흥미와 진로발달의 상관관계가 일반가정 초등학생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여부와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먼저 다문화 여부는 자기이해를 제외한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진로인식 전체 점수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진로흥미 가운데 진로인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진로흥미 영역은 사회형과 예술형이었다. 사회형 흥미는 자기이해와 진로태도 및 진로인식 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형 흥미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인식 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 비해 진로흥미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간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예술형 흥미만이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 흥미가 대체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직업세계 인식에 대해서는 예술형 흥미가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예술형 흥미가 갖는 영향력이 다른 흥미 요인에 비해 컸으며, 일반가정 초등학생은 사회형 흥미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예술형 흥미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형 흥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양계 미국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직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미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에 기인하며, 언어 유창성의 부족과 미국 사회내의 차별과 편견도 이들이 이 분야에서 진로를 찾으려는 노력

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 콰준규(1994)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예술형 진로흥미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진로인식에도 관여된 것이 아닌가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의 흥미 양상이 성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아동의 예술형과 사회형 흥미 점수의 영향력이 진로발달과 진로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에게서 예술형 흥미의 영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olland의 RIASEC를 반영하여 진로흥미를 측정하였는데, Holland 모델이 북미 이외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aufman, Ford-Richard와 McLean(1998)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과 성인들은 사회적, 기업적, 관습적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백인들은 실재적, 탐구적 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Havercamp, Collins와 Hansen(1994)은 백인 미국 대학생과 아시안 미국인의 흥미가 유사함을 지지하고 있다. du Toit와 de Bruin(2002), Watson, Stead와 Schonegevel(1998)은 Holland의 유형론이 남아프리카 흑인 젊은이들에게는 잘 맞지 않았음을 보고하였으며, Sanchez(2002)는 괄의 차모르족과 필리핀계 고등학생들의 흥미는 홀랜드 유형보다는 3-5가지 유형으로 보다 잘 설명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진로흥미 유형에 대한 다각적 탐색이 요구됨을 뒷받침한

다. 더불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 발달의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의 발달 양상을 성, 학년, 다문화 여부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과 진로 및 직업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에 이르러 진로계획과 선택 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로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진로발달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성, 진입을 위한 조건 등 다양한 진로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진로발달에서의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 인식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다분히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진로발달에 있어서 자녀가 보다 다양한 영역의 흥미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의 흥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이와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탐색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편중된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몇 년 사이 중, 고등학생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이들의 진로발달과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가 빠르게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중,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기초자료의 축적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유용한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진로흥미를 홀랜드의 관점을 반영하여 접근하였는데, 초등학생 진로흥미의 특성과 유형, 발달양상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다각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발달시켜가는 장이 대체로 학습장면과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습흥미와 진로흥미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진로발달 양상과 접목해 본다면 유용한 자료와 함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영숙 (2002).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자아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운정, 박한샘 (2009). 아동의 진로발달과 영향 요인. 진로교육연구, 22(2), 79-100.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8-2011 시도별 각급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곽준규 (1994). 문화와 환경적 소산으로서의 동양계 미국청소년의 진로발달. 동국논총인문사회과학편, 33, 229-263.

- 권혁본 (2001). 자아개념 및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규 (2000). 직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1, 161-186.
- 김옥환, 조봉환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과 기초 적성 및 학업흥미와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9, 123-144.
- 김재호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김효영 (201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윤 (2002).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미, 이순화 (2004). 초등학생의 진로지도 내용 개발을 위한 진로발달 지표 분석. 상담학연구, 5(4), 1235-1246.
- 염미화 (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성,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복희 (2003). 초등학생의 배경 요인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분 (2008).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범 (2005).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종범 (2007).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실과교육연구, 13(2), 115-134.
- 이현림, 이난희, 이영옥 (2006).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1), 221-233.
- 이현림, 김순미 (2004).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다중지능과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1(2), 83-99.
- 이현림, 주문자 (2007).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81-191.
- 임경희 (2004). 초등학생의 진로자아효능감과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2), 76-91.
- 임은경 (2000). 학령기 아동의 직업적 포부의 발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 (2004).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상담학연구, 5(3), 66-680.
- 정영희 (2007). 초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20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초등상담연구, 9(2), 218-235.
- 조봉환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24(2), 219-

- 245.
- 지용근 (2004). 성역할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71-88.
- 최명숙 (2003). 초등학생의 개인적·가정적 변인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0). 2010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 한국고용정보원 (2008).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개발 연구(2차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형윤주 (2005).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orr, A., & Lesser, G. S. (1980). Career awareness in young children. *Communication Research and Broadcasting*, 1(3), 36-75.
- du Toit, R., & de Bruin, G. P. (2002). The structural validity of Holland's RIASEC model of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for young Black South African men and wome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 12-77.
- Fouad, N. A. (2002).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vocational interests: Between groups differences on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283-291.
- Gunn, B. (1964). Children's conceptions of occupational prestig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2, 558-563.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avercamp, B. E., Collins, R. C., & Hansen, J. I. (1994). Structure of interests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56-264.
- Kaufman, A. S., Ford-Richard, J. M., & McLean, J. E. (1998). Black-White differences on the Strong Interest Inventory General Occupational Themes and Basic Interest Scales at ages 16 to 65.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19-33.
- Leong, E. T. (1991). Career development attributes and occupational values of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21-230.
- Lundberg, D. J., Osborne, W. L., & Miner, C. U. (1997). Career maturity and personality preferences of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3, 203-213.
- McGee, J., & Stockard, J. (1991). From a child's view: Children's occupational knowledge and perception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n S. Cahill (Ed.),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 development* (Vol. 4, 113-136). Greenwich, CT: JAI Press.
- Nelson, R. C. (1963). Knowledge and interests concerning sixteen occupation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3, 741-754.
- Rojewski, J. W. (1994). Career indecision types for rural adolescents from disadvantaged and nondisadvantaged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56-363.
- Sanchez, J. S. (2002). A cross-cultural study of Holland's vocational types with high school students in Guam (Doctoral dissertation,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200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62/12-A*, 4060.
-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 Super, D. E., Savick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Tracey, T. (2002). Development of interests and competency beliefs: A 1-year longitudinal study of fifth-to eight-grade students using the ICA-R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48-163.
- Tracey, T., & Ward, C. C. (1998). The structure of children's interests and competence perce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90-303.
- Tracey, T. J. G., & Watanabe, N., & Schneider, P. L. (1997). Structural invariance of vocational interests across Japanese and American cul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46-354.
- Watson, J., Stead, G. B., & Schonegevel, C. (1998). Does Holland's hexagon travel well?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7*, 22-26.
-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3월 31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5월 04일
 ◆ 계 재 승 인 일: 2012년 5월 10일

Career Interest and Career Awaren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Bung-Hwan, Ch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interest and career awareness by gender, age, and multi-cultural families/general families. The subjects were 341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vestigative, artistic, and social interests by gender.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interest. Second, the children from general families had higher scores than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elf-awareness, occupational exploration, career attitude, and career awareness. And the girls had higher scores than boys in self-awareness, occupational exploration, and career awareness. Thir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career interest and career awareness by age. The younger children had higher scores in career interest and lower scores in career awareness. Fourth, the career interest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career awareness in both groups. And there were stronger correlations in general children. Fifth, th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career interest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awareness in both groups, and there were higher effects in general children. The artistic interests in multi-cultural children and the social interest in general children had significant effects on career awareness. And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ies/general families was noticeable in occupational exploration, career attitude, and career awareness. The implication for multi-cultural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career interest, career awareness